

## 환경정의에 관한 충청지역 중·고등학생들의 의식 연구

### A Study on the Consciousness of Environmental Justice of the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Chungbuk

강영복<sup>1</sup> · 송영미<sup>2</sup>

(<sup>1</sup>충북대학교, <sup>2</sup>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본 연구에서는 환경 정의(正義)적 의식을 확산시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환경 부정의(不正義)가 없는 사회를 이룩하고자 중·고등 학생의 환경 정의에 관한 의식을 조사 분석하였다. 즉 사회계층간, 빈부간, 잘사는 지역과 못사는 지역, 노인·어린이·여성 등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환경 피해를 더 심하게 받고 있는 현실을 중·고등학생들이 어떻게 의식하고 있는가를 밝히고 관련 변인에 따른 의식의 차이점을 조사하여 환경정의적 의식을 확산시켜 환경문제 해결과 환경 부정의(不正義)가 없는 사회를 이룩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청주시 중·고등 학생 292명, 괴산군 읍 지역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 56명, 음성군 읍 지역의 중·고등 학생 130명, 진천군 면 지역 중학교 3학년 학생 65명 등 총 548명을 대상으로 2002년 7월 8일 - 7월 20일 사이에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 대상 학생의 환경정의 개념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환경 피해 제외자에 대한 인식이 낮았는데 이는 학생들이 환경오염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환경정의론적 시각에서의 환경문제 인식에 있어서 학생들은 노약자 등 저항력이 약하고 건강이 나쁜 사람들이 피해를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은 아주 높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소득이 높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환경피해를 적게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은 아주 낮았다. 관련 변수에 따른 환경정의 의식에서 환경정의 개념에 대한 인식은 특히 학년, 환경수업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많이 나타났다. 특히 환경 피해 불공평에 대한 인식이 환경수업을 받지 않은 학생이 높았는데 이는 환경수업의 내용이 환경관련 사실위주로 꾸며져 있을 뿐 자연 친화적 가치관과 생명 존중의 세계관을 느끼도록 할 내용을 빠뜨림으로써 환경위기에 처한 인류 사회가 지향해야할 방향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환경교육을 통해 실천적인 환경지식을 함양하여 환경부정

의나 환경 불평등에 대한 비판과 올바른 방향제시 등의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교육을 통해 사회계층간의 환경문제, 분쟁 그리고 오염에 대한 불평등 또는 부정의를 인식하고 해소하는 환경정의에 관한 의식을 함양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천적 능력을 갖게 됨으로써 인간사회에서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고 자연과 생명 공동체가 함께 하는 사회를 이룩할 수 있다.